

“우리말의 아름다움 담은 가곡, 오래도록 함께 불려야죠”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0월 200회 특집 연주회

2008년 첫 모임 후 18년 동행…시민 가곡운동 성장

“큰 무대는 아니지만 정성껏 차려입고 즐겁게 우리 가곡을 부르는 시민어들을 보고 있으면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곡을 애창하고 널리 보급해 위기의 우리 가곡을 보존하고 변창시키는 단체가 되고자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선옥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회장은 창립 18주년과 200회 특집 연주회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지난 2008년 8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월 시민들과 함께 우리 가곡을 부르며,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서정, 함께 노래하는 기쁨을 이어온 단체다.

우리 시와 언어로 빚어진 가곡을 보존하고 신작 가곡을 소개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는 무대를 꾸준히 마련해왔다.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간 문화적 벽을 허물고, 우리 글과 언어의 가치를 알리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도 해왔다.

그동안 4000곡이 넘는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고 보급했으며, 온라인 카페 회원은 1500여 명을 넘어섰다. 매회 누적 참여자를 합산하면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우리 가곡 무대에 함께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기념 무대를 넘어, 18년 동안 가곡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지역민과 소통해 온 시간을 되새기는 자리다.

200회 특집 연주회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소속 ‘사랑의 하모니 중창단’의 무대로 문을 연다. 중창단은 ‘추심’과 ‘가을엔 코스모스가 되어’를 들려주며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1부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를 주제로 준비된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비롯해 ‘국화 옆에서’, ‘가을의 기도’,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그리운 금강산’, ‘애모’, ‘산’, ‘별을 깨는 밤’, ‘동백 연가’, ‘달밤’, ‘사랑하는 내 님이여’ 등 우리 정서가 담긴 가곡들이 무대를 채운다.

2부는 ‘우리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주제로 이어진다. ‘가을 사랑’과 ‘노티나무’, ‘독도 너는 동해에서 있구나’, ‘사랑의 노래’, ‘적’, ‘그리움도 행복이라’, ‘사랑아’, ‘살짜기 읊서여’, ‘만리향’, ‘밀양 아리랑’, ‘항수’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 지도는 박호진, 진행은 박원자, 피아노는 황인화씨가 맡고 16명의 솔로 연주자들과 두빛나래 앙상블과 세대공간, 사랑의 하모니 등 6개의 중창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오는 10월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창립 18주년 200회 특집 연주회를 갖는다. 사진은 제199회 연주자들 모습.

팀이 무대에 올라 가곡의 다양한 매력을 전한다. 출연진은 마지막 무대에서 ‘사랑하는 내 님이여’와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200회 특집 공연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원자 부회장의 시 ‘청자 고운 푸른 빛’에 정덕기 고문 작곡가가 곡을 붙인 작품을 바리톤 김홍석 자문위원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한국의 문화유산인 청자의 아름다움을 우리말과 선율을 풀어내는 무대로, 우리 가곡이 지닌 서정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관객들에게는 황선옥 회장이 쓴 책 ‘가곡 이야기’와 200회 기념 문구가 새겨진 볼펜이 증정된다.

정덕기 고문 작곡가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18년 동안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시민과 함께하며 우리 예술가곡의 성지로 자리 잡아왔다”며 “창립 18주년과 200회 특집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영원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선옥 회장은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우리

말 노래가 트로트 중심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한 달에 한 번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모임에 참석하면 우리 가곡을 즐기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늘 함께하는 가곡 애호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창립 18주년 200회 특집 연주회는 ‘우리 가곡의 향기, 200회의 동행 그리고 울림’을 주제로 오는 10월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아시아의 맛 한자리에…ACC에 차려진 ‘문화 한상’

‘아시아문화주간’ 8~11일 아시아문화광장 일원에서

태국 가정식·인니 커피 체험… 15개국 아트마켓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생활문화를 한자리에에서 만나는 문화교류 축제를 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김상옥 전당장)은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아시아문화광장 일원에서 ‘2026 아시아문화주간’을 연다.

‘아시아문화주간’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 문화교류 축제다. 올해는 ‘아시아의 식탁’(Asia on the Table)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음료, 이를 둘러싼 생활문화를 소개한다. 식탁이라는 일상의 공간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다.

주요 행사인 ‘아시아의 식탁’에서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레스토랑 아갓디 항동(Ahh Kard D Hang Dong)을 운영하는 셰프 파차라판 키타폰(Pachraphan Kittikorn)이 자연 친화적 가정식 다이닝을 선보인다.

치앙마이 외곽 항동 지역에 자리한 아갓디 항동은 가정에서 물려받은 조리법에 태국 북부의 제철 식재료를 더해 메뉴를 구성하는 곳이다. 향신료를 태국 전통 절구인 크록(Krok)으로 직접 뿔아 쓰는 방식이 특징이다.

후식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모던 프렌치 파인 다이닝 ‘알맹’의 공다현 오너 셰프와 협업해 구성한다. 결들임 주(酒)는 버누룩으로 술을 빚는 광주의 전통주 양조장 ‘곰브루어리’가 선보인다.

인도.

이와 함께 행사기간 아시아의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 워크숍이 열린다. 인도네시아 커피 전문가이자 바리스타인 미카엘 자신(Mikael Jasin)이 커피 이론과 시연을 함께 다루는 바리스타 클래스를 두 차례 진행한다.

미카엘 자신은 세계적인 바리스타 대회인 ‘2024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로는 처음 우승한 바 있다.

태국 야생차 연구팀 ‘미앙 크래프트(Miang Craft)’는 태국의 전통 차문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태국 야생차와 차 생산 과정을 공유한다.

무대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경남 고성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국가무형유산 ‘고성농요’는 모내기철 논에서 부르던 농사소리를 농사과정의 재현과 함께 노래, 춤, 연희로 표현한다.



인도 전통 현악기 ‘수르바할’(Surbahar)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수르바할은 크고 낮은 음역을 내는 악기로 깊은 울림이 특징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연주가가 결성한 그룹 투론(TORON)의 노래와 음악도 무대에 오른다.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아트마켓’도 열린다. 인도와 네팔, 오만, 인도네시아, 시리아, 몽골, 스리랑카, 태국, 튀르키예, 한국 등

15개국 66개 부스가 참여해 각국의 수공예품과 생활용품, 문화상품 등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현지 예술가와 셀러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다. 김상옥 전당장은 ““아시아문화주간’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예술을 한자리에에서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라며 “행사 기간 많은 시민들이 ACC를 방문해 다양한 아시아를 체험하고 즐거운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MBC 창사 62주년, 지역 미래·삶 다채롭게 조명

메가프로젝트 대토론·통합특별시 다큐 등 특집 프로그램 선포

광주MBC가 창사 62주년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과 기념행사를 선보인다.

광주MBC는 8일 창사 62주년을 맞아 대토론, 다큐멘터리, 라디오 공개방송, 생활체육 행사 등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창사 특집 대토론 ‘메가프로젝트, 대전환의 시작’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진단한다. 오순영 시민대표포럼 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아 총 3부작으로 방송되며, 2026년 대한민국 지역경제 지형을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으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현안과 가능성을 살핀다. 방송은 오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이어진다.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가지 않은 길’은 오는 11월 5일 오후 9시 방송된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광역 행정 통합을 먼저 단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균형발전의 방향을 짚는다.

오월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 오월 광주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는 오는 30일 오후 9시 방송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의 삶과 노래를 담고, VR 기술을 통해 46년 만에 마주하는 특별한 해후의 순간도 전할 예정이다.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정오의 희망곡-굿모닝 양림’은 오는 16일 오후 6시 45분 양림동 행권마을 오픈스튜디오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김정민, 자



지난 영산강 그라운드 in 나주 진행 모습.

두, 이기찬, 이상한계절, 국악인 김산옥, 테너 강동명 등이 출연하며, 방송은 오는 23일 낮 12시 광주 MBC FM 91.5MHz를 통해 송출된다.

생활체육 행사로는 ‘제5회 무등산권지오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일 금호화순스파리조트 주차장 일원에서, ‘광주MBC 2026 영산강 그라운드 in 나주’가 오는 31일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열린다. 광주MBC는 각 대회 현장을 TV 생방송과 유튜브 생중계로 전한다.

김치의 가치와 김장 공동체 문화를 조명하는 ‘김치 만개(滿開)’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김치제 축하포럼, 김치온더 락 콘서트, 청춘만개 K푸드 페스타, 대한민국 김치대전 등이 진행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한글날 앞두고 ‘우리말·글 소중함’ 일깨우다

(사)한국문화예술디자인협회 캘리그래피 회원전

한글의 아름다움과 캘리그래피의 예술적 표현을 한자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더욱이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아 의미를 더한다.

(사)한국문화예술디자인협회

(이사장 조유경)는 한글날(10.09)을 기념한 캘리그래피 회원전을 지난 2일 개막, 오는 9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청 1층 시민갤러리에서 ‘붓 끝에 핀 한글’이라는 타이틀로 열고 있다. 타이틀인 ‘붓끝에 핀 한글’은 한글 한 자 한 자에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간 회원들의 정성과 함께, 우리의 글이 예술로 피어나는 모습을 담았다.

이번 전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는 한글을 캘리그래피라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새롭게 바



라보고, 회원들이 각자의 감성과 개성을 담아 표현한 작품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기념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한글

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예술로 표현하는 만큼 가치가 깊다.

전시장에서는 작가마다 서로 다른 필체와 붓의 흐름, 먹과 색의 조화, 여백의 미를 활용해 표현한 다양한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같은 한글을 소재로 하면서도 작가의 개성과 감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2026 아시아문화주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관람객들